

여수세계박람회 D-12 운영 예행연습 프로

3만7천 관람객에 하루내 줄서기

현장에매 시스템 작동 안돼 소동

여수세계박람회(5월 12~8월 12일·이하 박람회) 개막을 코앞에 두고 지난 28일 첫 예행연습이 열렸지만 전시관별 관람객 수용능력

이 크게 떨어져 전시관에 입장하지 못한 관람객들이 항의하는 등 소란을 빚었다. <관련기사 2면> 박람회 조직위가 관람 대기 시간

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전시관 예약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고,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이뤄지지 않아 관람객들이 인기 전시관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때문이다. 28일 열린 예행연습에는 모두 3만7000여명의 관람객이 박람회장에 입장했다. 이들 관람객들은 여수산단에 마련된 1·2환승주차장에서 순환버스를 타고 박람회장으로 이동해 우려됐던 교통 정체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쿠아리움 등 인기 전시관 앞에는 길게는 700m 이상 줄을 서야 하는 등 관람 대기 시간이 2시간 넘게 걸리기도 했다. 또 해양문명도서관(26분당 80명 수용) 등 관람객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관은 아예 관람조차 할 수 없었다. 조직위는 박람회 전시기간에 주제관·한국관·기후환경관·해양산업기술관·해양문명도서관·해양생물관·아쿠아리움·대우조선해양로봇관 등 8개 관을 100% 예약제(오후 6~9시는 현장 대기순)로 운영한다. 관별 하루 관람 인원이 7000명~2만3200명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1인당 2곳의 전시관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사전에 30%, 박람회장에서 70%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직위는 이날도 사전 예약과 현장 예약을 통해 관람객을 분산할 계획이었지만 현장 예약 시스템이 오전에 마비돼 예약제 자체가 무용지물이었다. 관람객들은 인기 전시관 위주로 몰려다녔고, 조직위도 순식간에 불어오는 관람객 때문에 진땀을 빼야 했다.

관람객 김영수(42·순천시 조례동)씨는 "하루종일 줄만 섰고, 관람시간도 짧아 제대로 감상도 못했다"면서 "전시 기간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전시관 한 곳 제대로 들어가 보지도 못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수=오광복기자 kroh@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여수세계박람회 개막(5월12일) 전 첫 예행연습이 열린 지난 28일 디지털갤러리 천장에 설치된 218m의 대형 스크린에 환상적인 바다 풍경이 펼쳐지자 관람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뇌물 또 뇌물, 지역사회 왜 이러나

광주·전남 공직사회 전반에 뇌물을 받고 공사나 인사 청탁, 감사·수사 무마 등의 특혜를 주고받는 '뒷거래'가 뿌리깊게 남아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행정과 사업이 청탁과 특혜 속에 왜곡되면서 결국 지역 전체에 생계와 후유증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저축銀·총인·대학비리서 교육감 수뢰까지

인사·공사 청탁 낚두꺼운 '검은 거래' 만연

최근 검찰수사에서 공무원, 경찰, 검찰 수사관, 국회의원 비서관, 대학교수, 대학 간부직원, 건강경기심사원 직원, 지방자치단체장 측근은 물론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권한'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검은 돈'이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수십 명이 연루된 보해저축은행 비리, 광주시 총인저감시설 비리부터 불법 대출사기, 대학 간부직원 배임증제, 곡성군

비서실장 뇌물수수 등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 비리는 직급이나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상존해있었다.

비리사건은 대부분 뇌물을 건넨 사 진이나 영상 등 직접 증거가 없는 탓에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의 진술, 장부나 리스트 등의 압수 등에 의 연루된 보해저축은행 비리, 광주시 총인저감시설 비리부터 불법 대출사기, 대학 간부직원 배임증제, 곡성군

이 같은 관행은 곧 지역주민들에게 '뇌물은 곧 특혜'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고, 드러난 것에 대한 처벌만을 강조하면서 비리는 더 깊숙이 숨어드는 양상이다.

보해저축은행 비리사건의 경우 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대상 저축은행으로부터 아파트·자동차 구입대금 등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챙긴 전형적인 '도덕성 해이' 사건이다. 광주지역 유명 신협 2곳의 여신과장은 허위 건설기계 등록서류를 담보로 각각 수십억원을 불법대출해주고 뒷돈 1억9000여만원과 5200만원을 받았다. 여기엔 고소사실 무마, 사건 청탁 등의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경찰,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연루됐다.

기술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13명이 982억원에 달하는 광주시의 총인

저감시설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점수를 매겼다. 수익성이 높은 탄기(설계·시공 일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치열한 '로비'는 사회지도층 인사에게도 먹혀든 것이다. 곡성군수 비서실장과 영광원자력발전소 직원들은 공사현장과 발전소 내 자재·부품 등을 납품하도록 한 뒤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받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학사회에서도 골프나 식사 대접 등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오죽하겠느냐"며 "차별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사업 및 공사 발주, 인사, 감·경의 수사 등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검역중단은 못한다"

청와대 입장 재확인

조사단 오늘 訪美

청와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강화하되 당장 검역중단은 없으며 '검역 강화'로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3·8면>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상 황으로 미뤄 검역 강화 조치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국 광우병 발생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美 쇠고기 민·관 합동 현지조사단'이 내일 출국한다"면서 "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상황 변동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일시 수입 중단 조치를 한 것으로 2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 언론에 따르면 "태국 당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협뉴스

광주비엔날레도 타당성 조사 거쳐야

정부, 국제행사 승인 요건 강화...완도 해조류박람회도 대상

내년 열리는 제 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6일~10월27일)와 2014년 예정된 제 10회 광주비엔날레, 완도 해조류박람회 등에 대한 정부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총사업비 100억 이상인 국제행사에만 적용되던 타당성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억 이상 행사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비엔날레 등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도 매년 심사를 거쳐 국제행사의 경제성과 유치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행사 개최 여부를 승인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보다 꼼꼼한 행사 추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한 국제 행사 중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2013년 9월~10월) ▲제 10회 광주비엔날레(2014년 9월~11월) ▲2014 완도 해조류박람회(2014년 4월11일~5월11일) 등 9개 국제행사를 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기획재정부에 10회 광주비엔날레를 위해 모두 60억원(2013년 20억·2014년 40억)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고 디자인비엔날레에는 2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4개월간의 타당성 검토 및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사 개최 승인 등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애초 목표 또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국제 행사의 경우에는 국고 지원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고객만족경영대상 4년수상



광주일보 since 1952

AIRPLANE ON THE SEA QUEEN STAR

국내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고, 럭셔리한 쾌속카페리

목포↔제주 구간 2시간 50분 소요!

퀸스타호 취항



- 총톤수 5,889톤
- 여객 880명
- 차량 200대
- 속력 38노트





씨월드고속훼리주 1577-3567
http://www.seaferry.co.kr

• 전천후 항해와 멀미 방지를 위한 T-FOIL 및 FIN 시스템을 장착한 프리미엄급 선박입니다.